

제1절 지역 문화예술의 형성과 특징²⁰²

문화와 예술은 한 집단이 살아온 자연환경, 역사, 종교 및 철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종교는 예술의 주제나 형태미뿐만 아니라 그 지역 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울진지역은 경상북도 동북단에 있어 동쪽으로는 동해, 북쪽으로는 강원도, 서쪽으로는 봉화군, 영양군, 남쪽으로는 영덕군과 접하고 있다.

산업은 농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 마을은 반농반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울진지역에서 바닷가에 살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설이나 가사를 향유하지 않았는데 사회·문화적으로도 필사된 형태의 문학을 향유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²⁰³

울진은 산과 바다가 인접해 있어 산촌과 어촌이 합쳐진 도시이기 때문에 산과 바다에 대한 경외(敬畏)를 담은 샤머니즘(shamanism)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결국 농촌 중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산과 바다의 샤머니즘이 합쳐진 독특한 정신문화가 형성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현존하는 사료, 충효열비각(忠孝烈碑閣)이 다른 지역보다 많음이 그 증거이다.²⁰⁴

울진 방언은 강원도와 경북이라는 대방언권의 경계 지역이고 행정구역상 오랫동안 강원도에 속해 있었기에 중부 방언의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울진과 삼척의 경계에는 대관령이 자리해 있어 군민의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약했을 것이다.

울진의 지역의 특징은 대방언권 경계지역, 행정구역상의 변화, 교통이 불편해 외지인의 내왕이 적었던 오지, 해안을 끼고 있는 산악지대 등이다. 이는 울진 방언이 경상북도 방언을 중심으로 하면서 강원도의 영동 방언의 영향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었으며, 1970년 이후 울진과 대구 사이의 왕래 시간이 단축되고,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구 방언의 영향도 받게 되었다.

202. 지역 문화예술의 형성과 특징의 내용은 『울진군지』(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을 참조하여 서술했다.

203. 권미숙, 2014, 「20세기 중반 영덕·울진지역의 고전소설 향유 양상」『민족문화논총』5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47쪽

204. 주동진, 2014, 「蔚珍精神의 文化地圖에 대한豫備的試論 : 忠孝烈의 길(道)」『민족문화논총』5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06쪽